

무안군, 양파 재배 기계화 경쟁력 강화

2019양파 기계화사업 교육 실시

인건비 상승 해소 및 생산비 절감

무안군은 지난 20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농가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비 절감을 위한 '양파 기계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파 기계화' 사업은 농촌 노동력의 감소와 농번기철 천정부지로 치솟는 인건비 상승 해소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것으로 무안군은 매년 기계화 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올해 무안군은 군정 역점사업인 양파 기계정식 단지조성 사업을 위해 전년(547ha) 보다 15%가 늘어난 630ha를 목표로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해 기계정식에 필요한 육묘상자, 종자코팅, 멀칭비닐, 상토 등의 농자재와 밭정식기, 전엽기, 파종기 등의 기계

를 지원한다.

군은 이번 교육에서 기계 육묘 재배 기술과 농가 우수 사례발표, 농가 토론회 순으로 진행되었고, 토론회를 통해 농가 상호간 정보 교환과 그동안 양파 기계정식을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의 자리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양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양파 재배 농가가 불안정한 양파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이 절실하고 이는 양파 기계화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현재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선 정식과정 기계화



는 "양파 기계정식의 성패는 육묘에서 관리를 한다며, 관행과 달리 기계묘는 묘판 발아율, 물 관리와 비배 관리 등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현재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선 정식과정 기계화

이다. 앞으로 분발 관리 기계화(비로살포, 병해충 방제), 수확작업 기계화, 농작업 간소화(생분해 멀칭비닐) 등 산적한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진도군 SNS 서포터즈 2기 활동 시작



진도군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기 위해 역량있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유저들이 나섰다.

진도군은 제2기 보배섬 SNS 서포터즈'들이 지난 22일 진도군청 상황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기 진도군 SNS 서포터즈 단원들은 모바일을 통한 의사소통과 정보를 교환하는데 익숙하고 홍보에 탁월한 역량을 지닌 37명이 선발됐다.

진도군에 애정이 있고 글쓰기와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20대부터 60대까지의 주부, 직장인, 농어업인 등이 서울, 제주, 대구 등지에서 다양하게 참여했다.

특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잘 활용하는 다문화 이주 여성 6명이 보배섬 SNS 서포터즈로 위촉됐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진도군의 농수특산물, 축제, 행사, 문화 등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소식 등 보배섬의 숨은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또 관광명소, 축제, 맛집, 미담 등을 자유롭게 취재해 진도군이 운영 중인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와 개인 블로그를 통해 전달한다.

군은 홍보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포스팅 원고료, 지원, 팸투어, 우수단원 표창, 역량강화교육, 간담회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진도군 SNS 서포터즈로 위촉된 이명희(서울특별시)씨는 "불가리·즐길거리와 예술의 향기, 특별한 체험거리가 가득한 보배 섬 진도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해남군, 경제살리기협의회 출범

해남군이 전남 최초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해남군은 지역경제 정책제안 및 경제 현안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해남군 경제살리기 협의회'를 구성하고 20일 출범식을 가졌다.

해남군 경제살리기 협의회는 명현관 해남군수를 위원장으로 교수, 금융인 등 경제 전문가와 군의원, 언론인, 소상공인 등 분야별 지역주

민 35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협의회에서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비롯해 해남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특히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민관협의회는 전남도 최초 구성돼 주민들과 행정, 전문가들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원도=김광수 기자

영암군, '무화과 축제' 개최한다

내달 27일부터 3일 간

무화과의 최초 재배지이자 최대 생산지인 무화과의 고장 영암군에서 오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영암 자동차 국제 경주장 내에서 '2019 영암무화과 축제'가 열린다.

박성준 무화과 축제 추진위원장은 "지난해까지 나불공원에서 추진하였던 무화과축제를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전남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전남 GT 대회와 병행 개최하여 양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축제장소 협소문제 해결, 주차장의 불편 해소 및 전국에서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무화과를 홍보하여 전국에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고자 하며 전 주민들이 함께 동참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으로 삼호읍 문예체육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소변경 등 축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축제는 무화과 생과 판매 농가들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무화과 관련 제품 뿐만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각종 제품들의 홍보, 전시관 운영, 무화과 무료시식회, 관광객들의 직접 참여·체험행사로 구성되어 방문객들에게 신선한 영암 무화과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풍부한 불가리를 선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동평 군수는 "상품성이 떨어진 무화과를 서둘러 시장에서 격리하고자 약 2억 5천만원의 무화과를 폐기처분하여 최상의 무화과를 생산 판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완도군은 지난 20일, 완도군지역 발전상생협의회 각 분과별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군 집행부 서무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완도군지역발전상생협의회 출범 이후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5개 분과별 상생 협력 활동이 중요한 만큼 소통 창구 단일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호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완도군지역발전상생협의회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소통 창구인 만큼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군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행정 환경 변화의 속도에 맞춰 협의회도 열린 자

세로 운영해 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매분기 1회 분과별 회의를 매년 홀수 월(셋째 주 화요일)로 정례화 하여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민 모두가 소통하고 화합해야 한다면서 그 선두 대열에 지역발전상생협의회가 앞장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분과별 건의

사항 등 회의 결과를 사무국인 자치행정과에서 취합해 관리 카드화하고, 이를 정기회의의 안건으로 상정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월, 민선 7기 군민 상생협력의 소통 기구로 출범한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는 기획·행정·교육, 문화·관광, 보건·복지, 지역개발·환경, 해양수산·농림 등 5개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총 46명의 위원들이 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을 공유하며 민·관 소통의 대표적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원도=김광수 기자

강진군, 편농 실천 단지 조생종벼 첫 수확



지난 21일 강진군 도암면 옥전 들녘에서는 벼 병해충 육묘상 1회 관주처리 농법으로 재배한 조생종 벼의 첫 수확이 있었다.

강진군은 벼 병해충 1회 관주처리 농법을 지난 2017년에 첫 시범 도입하여 큰 호응을 얻은 후, 농가 자율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매년 현장 지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 농법은 조생종 조기재배에 최적

화된 농법으로 모내기 전 모판에 1회 약제 살포로 벼 수확기까지 추가 농약 살포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편한 농법이다. 특히 올리는 문고병 및 도열병이 극심했음에도 수확 농가인 양태현·김군자 부부는 단 한 번도 농약살포를 하지 않고 수확을 마쳤다.

수확한 품종은 한살벼로 조평, 조평 1호, 윤일찰 등과 함께 강진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조생종 품종 중 하나로 쌀 외관과 밥맛이 양호하여 추석 명절 대비 햅쌀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강진군 조생종 벼 재배면적은 약 350ha로, 대부분 강진군농협통합RPC 및 두보식품과 계약한 면적에서 추석 명절 출하용으로 재배되고 있다.

강진=김영민 기자

목포문학관, 문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근대문학의 산실인 목포문학관에서 문학 작가를 꿈꾸는 성인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19 하반기 문학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한다.

문예대학 시·소설 창작반, 어린이 문학교실, 어린이 스피치반 등 6개 반으로 오는 9월 4일부터 12월 21일까지 4개월 과정이다.

성인 대상 문예대학은 시인 김신배 목포대 교수가 지도하는 '시창작반' (매주 금요일 10:30~12:00), 소설가 채희운 광주여대 교수가 지도하는 '소설창작반' (매주 수요일 14:00~15:30)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작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다.

토요일을 보다 즐겁고 알차게 보내고 싶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재미있

는 독서법과 글쓰기, 스피치를 지도하는 '어린이문학교실' (첫째·셋째 토, 10:00~11:30)과 '스피치반' (첫째·셋째 토, 09:00~10:30, 10:30~12:00) 강좌가 운영된다. 이를 통해 작가의 길을 꿈꿔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강좌별 수강료는 4만원이며, 목포문학관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개강일 전까지 수강신청하면 된다.

한편, 목포문학관은 우리나라 연극에 근대극을 최초로 도입한 극작가 김우진, 우리나라 최초 장편 여류소설가 박화성, 사실주의 연극을 완성한 극작가 차범석, 한국 평문문학의 독보적 존재 김 현 등의 문학세계를 느낄 수 있는 국내 최대 4인 복합 문학관이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